

2025 대학별
수시 분석 05

경희대

모든 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 자율·자유전공학부 주목

경희대는 2025학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 성적 70%에 교과종합평가 성적 30%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으로 634명을 선발한다. 2024학년에 비해 56명이 증가했으며, 모든 계열에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됐다.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전년보다 37명 적은 1천55명을 선발한다.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전공학부(서울), 자유전공학부(국제)가 신설돼 수시 모집에서 각각 80명, 187명을 선발한다. 경희대 임진택 입학사정관팀장에게 올해 수시 지원 시 주목해야 할 점을 들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대학별 수시전형 분석 자료단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등학교)
강권일 교사(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배대열 교사(대구남산고등학교)
이재훈 교사(경기 한민고등학교)

Q. 2023 대입과 비교해 2024 대입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졸업생의 지원이 늘었다. 종합전형 지원자 중 30%, 최종 등록자 중 18.82%가 졸업생이었다. 재학생의 합격률이 높지만, 졸업생 지원이 최근 해마다 5%씩 증가하는 추세다. 경쟁률 면에서 교과전형은 하락했고,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상승했다. 특히 교과전형은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 수월한 데다, 지원자층이 한정

돼 중복 합격자가 다수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대학 간 연쇄 이동이 발생해 일부 모집 단위는 실질 경쟁률이 1:1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또 수능 수학 <미적분> 응시자의 인문·사회 계열 지원 비율이 정시에선 하락했는데, 수시 지역균형전형은 2023학년 10.9%에서 2024학년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단, 최종 등록자 중 비율은 16.9%로 2023학년 15.2%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

Q. 2025 수시전형에서 입학 후 전공 선택 모집 단위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지원 시 유의할 점을 짚어준다면?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406명을 자율전공학부(서울), 자유전공학부(국제)로 선발한다. 입학 후 희망하는 전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집 단위다. 수시에선 교과전형 비중이 크다. 신설한 자유전공학부의 합격선은 2024학년 광역 모집 합격선이 해당 개별 전공 합격자의 평균 수준

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과 1.7등급
내외에서 형성될 것 같다.

Q. 자율·자유전공학부의 평가 요소가 타 모집 단위와 다른 이 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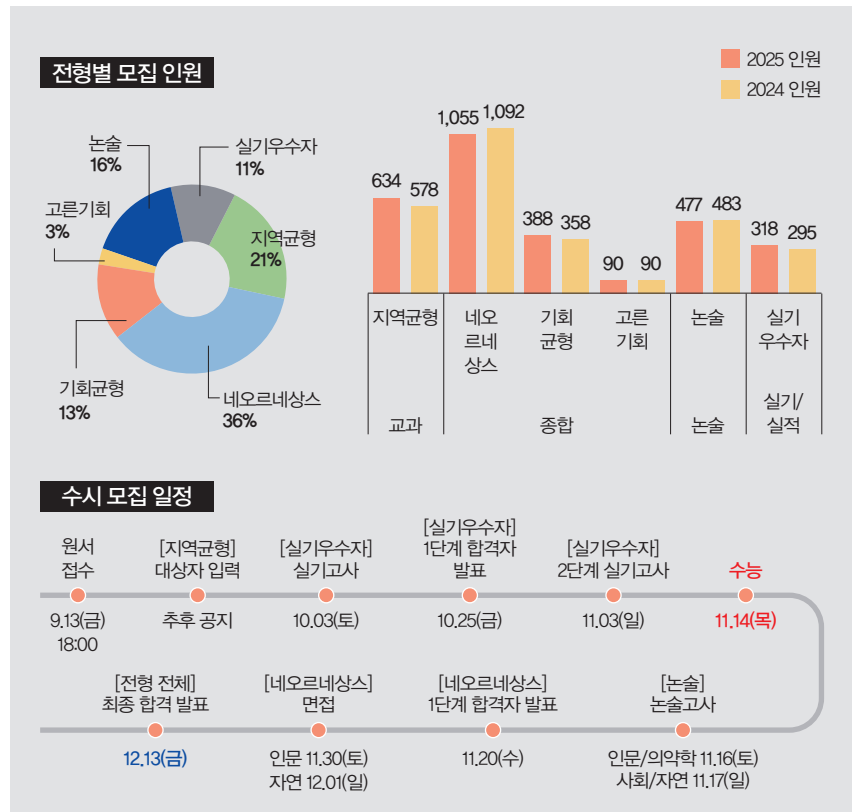
교과전형의 교과종합평가에서 학
업 역량만 100% 반영하며, 종합전
형에선 진로 역량 대신 자기 주도
역량을 살핀다. 전형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함이다. 특히 종합전형의
'자기 주도 역량'을 궁금해하는데,
희망 전공이 뚜렷하지 않아도 자
기 주도적 활동과 경험이 필요하
다는 판단하에 주도적으로 과목
을 선택하고 탐구한 경험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
다. 진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방
향과 목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게 계열로 접근해 관련성이 큰
과목을 이수하거나, 혹은 본인의
관심사나 목표를 기준으로 주도
적으로 계열을 넘나들며 공부했
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Q. 모든 계열에서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지정 과목)을 폐
지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의도가 있다. 2025학년
부터 경희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
준에서 탐구 과목 반영 방식을 상
위 1과목에서 2과목 평균으로 바

꿘다. 탐구를 1과목만 반영하니 1과목만 우수한 지원자가 늘었고, 이를 통
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
과목 반영으로 변경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25 경희대 수시 Overview									
전형	전형명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교과	지역균형전형	교과·비교과 70+ 교과종합 30 ※ 고3 학생 수 5% 이내 재학생만 추천 가능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인문, 자연	○	○	○	○	2	5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	○	○	○	2	5
종합	네오르네상스 기회균형 고른기회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70+면접 30 서류 70+교과 30 서류 70+교과 30	과	한	사	없음			
			2합 5	3합 4	1개 3				
			2합 5	3합 4	1개 3				
논술	논술우수자	논술 100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인문/자연	○	○	○	○	2	5
			의/한/치/약	○	○	○	○	2	5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국(국어), 확(확률과 통계), 미/기(미적분/기하), 사(사탐), 과(과탐),
한(한국사)을 각각 의미하며, '사/과'와 한국사의 숫자는 각각 응시 과목 수와 등급을 말함.
'최저'의 '2합 5'는 2개 영역 합 5 이내라는 뜻.
※ 세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강 참조.



필수 응시 과목을 없었다. 지난 입시 결과로 예측해보니 최저 기준 충족률이 8%가량 하락했다. 현재 경희대 인문·자연 계열 최저 충족률은 약 70% 수준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Q. 지리학과, 한의예과는 인문 계열로도 모집한다. 자연 계열 선발과 어떤 차이가 있나?

모집 단위가 다른 만큼, 평가에서도 계열별 특성이 반영된다. 한의예과(인문)은 사회 교과 이수 여부, 자연은 <수학> <미적분> <생명과학 I·II> <화학 I> <물리학 I> 이수 여부를 살펴보는 식이다. 때문에 지역균형의 교과종합평가에서 한의예과(인문)은 사회 영어 교과 위주로 이수하며 의료 문제나 국제화 역량을 쌓은 학생을 높게 평가하는데, 수학·과학 교과를 집중 이수한 학생이 지원하면 '전공 이수 노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과 성적 환산식 또한 모집 계열에 따라 교과별 반영 방식이 다르다. 자연 계열 지망생이 종종 인문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강점을 발휘하기 어렵다.

Q. 교과전형의 교과종합평가, 종합전형의 면접의 실질 영향력은?

교과전형 최초 합격자의 평균 27.9%가 교과종합평가로 당락이 뒤집혔다. 단 충원 합격을 포함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11.8%로 하락한다. 주요 평가 요소인 교과 성적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듣도록 유도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장치로 제 역할을 하는 수준이다. 단, 의·약학 계열의 최초 합격자의 44.4%, 최종 등록자의 19.2%가 교과종합평가로 결과가 바뀌었다. 지원자의 성적대가 촘촘하면 동점자도 많아 영향력이 크다. 면접은 2단계에서 30% 반영되는데, 최종 등록자 중 22.3%가 면접 결과로 합·불이 바뀌었다. 명시된 반영 비율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면 된다.

Q. 경희대는 자연 계열 이수 핵심·권장 과목을 안내한다. 지원자들의 해당 과목 이수 비율은?

핵심 과목은 95%, 권장 과목은 80% 내외 이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일부 평균에 훨씬 못 미친 과목이 있다. 자연 계열에서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인 경우에도 이수 비율은 60%에 그쳤으며, 생체의공학과는 <물리학 II>가 핵심 과목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지원자 이수 비율은 60% 미만이었다. 학문 특성상 대학 수업이 고교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자연 계열 모집 단위 이수 과목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인문 계열에선 자기 주도적 과목 선택이 있는가에 주목한다. 단 학과에 따라 눈여겨보는 과목이 있긴 하다. 경영학과는 <수학 I·II> <확률과 통계>에 <미적분>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등을 추가로 이수하며 수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정치외교학과는 이와 달리 <세계사> <세계지리> <사회·문화> 등 사회 교과와 제2외국어 과목을 공부하며 국제무대에 대한 흥미와 소양을 드러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식이다.

Q. 올해 수시 지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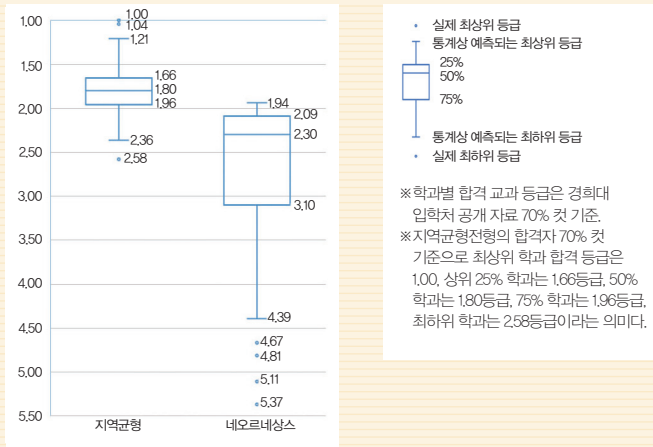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최저 기준이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교과전형의 의약학 계열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일부 학과는 최저 충족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최저 충족률이 낮은 학과에 지원하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일부 특수학과 외에는 캠퍼스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진로 탐색이 부족한 경우 대학에서 경험을 쌓아 진로를 정할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

● 2024 수시전형 및 모집 단위별 경쟁률

상위 5			하위 5		
지역균형	네오르네상스	논술	지역균형	네오르네상스	논술
전자정보공학부 반도체공학과(4) 23.0	생물학과(13) 55.69	한의예과(인문)(5) 362.2	중국어학과(6) 3.50	도예학과(11) 7.09	응용수학과(4) 19.5
환경학및환경공학과(5) 15.0	약학과(12) 43.92	의예과(15) 187.6	간호학과(인문)(7) 3.57	러시아어학과(11) 9.73	한방생명공학과(4) 20.0
빅데이터응용학과(3) 14.67	화학과(8) 43.13	약학과(8) 176.5	조리&푸드디자인학과(4) 3.75	환경조경디자인학과(10) 9.9	원자력공학과(8) 22.5
한의예과(인문)(3) 14.67	한의예과(인문)(9) 36.11	의예과(11) 138.9	Hospitality경영학과(16) 3.81	간호학과(인문)(9) 10.56	스마트팜학과(4) 23.3
한방생명공학과(3) 14.33	유전생명공학과(13) 32.54	국어국문학과(7) 116.0	행정학과(12) 3.92	한국어학과(7) 10.71	응용화학(5) 24.0

※ () 안은 학과별 모집 인원.

● 2024 수시전형 및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



● 교과 등급 상위 5개 학과(70% 컷 기준)

	지역균형	네오르네상스
1	의예과 1.00	의예과 1.04
2	한의예과(인문) 1.04	한의예과(인문) 1.1
3	치의예과 1.21	한의예과(자연) 1.35
4	약학과 1.24	한약학과 1.68
5	체육학과 1.27	약과학과 1.75

● 교과 등급 하위 5개 학과(70% 컷 기준)

	지역균형	네오르네상스
1	프랑스어학과 2.58	러시아어학과 5.15
2	러시아어학과 2.36	일본어학과 4.6
3	중국어학과 2.32	중국어학과 4.73
4	태권도학과 2.2	주거환경학과 2.08
5	도예학과 2.1	한국어학과 4.3

● 입학 후 전공 선택 모집 단위 수시 모집 인원

모집 단위	지역균형	네오르네상스	기회균형	고른기회	논술
자율전공학부(서울)	49	18	3	2	8
자율전공학부(국제)	187	0	0	0	0

자문 교사의 경희대 2025 수시 합격 Advice

경희대는 올해부터 모든 계열에서 필수 응시 과목(지정 과목)이 폐지되어 인문·자연 계열을 분리 선발하는 학과는, 수학·과학을 집중 이수한 자연 계열 지망 학생이 인문 계열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전형은 전년 합격자 교과 성적이 평균 1.7등급으로 교과 등급의 영향력이 크다. 수도권 대학 학교장추천전형, 비수도권 대학 지역인재전형 및 교과전형과 중복 합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전형보다 서류 평가 부담이 적어, 교과 성적 상위권 중 최저 기준 충족이 가능하고, 교과 수업에 충실하고 전공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다. 특히 자율전공학부(국제)는 비교적 많은 187명을 선발하므로 학과 단위 모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40%), 진로 역량(40%), 공동체 역량(20%)이다. 자율전공학부(서울)는 진로 역량 대신 자기 주도 역량(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반영한다. 진로 역량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한다.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가이드북에 안내된 학과별 권장 과목을 확인한 후 가급적 이수해야 한다.

논술전형 또한 홈페이지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모의 논술, 기출문제를 참고해 출제 범위와 문항의 난도를 파악해야 한다. 논술 문항 제작에 적용된 과목별 출제 단위·개념과 성취 기준을 살펴야 한다.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학습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